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4호 【루계 제2670호】

주체110(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음력 9월 2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위대한 단결을 뚜렷이 과시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의 력사적의의는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함이 없으며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불멸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극히 곤난한 형편에서도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전선에 파견하는 전략적결단을 내리고 사심없는 혁명적지원을 주었으며 조중 두 나라 인민과 군대의 단결된 력량으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조중 두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고 피와 목숨으로 조중친선력사우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겼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지원군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와 공적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조중친선은 세대가 바뀌여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렬사들의 고귀한 넋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바라는 진정과 경의를 담아 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낸다고 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25일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정중히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가 보내는 화환들이 정중히 진정되였다.

본사기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로 보는 조선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지난 22일 페막되였지만 국제사회계에서는 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있다.

강국의 체모를 남김없이 보여준 전람회

이번 국방발전전람회의 행사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소개하면서 강국의 체모를 남김없이 보여준 전람회였다고 격찬하고있다.

국방발전전람회의 개막식이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여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였다고 하면서 종합군악대의 특색있는 례식으로부터 군인들의 격술시범출연, 공군전투기들이 다양한 색갈의 구름띠를 만들면서 펼치는 기교비행과 초저공비행, 락하산병의 강하기교 등 경쾌감과 장엄함이 한데 어울리는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채로웠다고 하였다.

조선이 보유한 자력자강의 위력

국방발전전람회장을 꽉 채운 최신형첨단무기들이 공화국의 자력자강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다고 평하였다.

력사상 첫 무기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축적하여온 국방력을 내외에 과시하고있다고 하면서 국방발전전람회장은 그 형식과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개최하는 무기전시회들과 결코 짝지지 않을 정도로 장엄하였다, 여기에 전시된 모든것이 다 조선의 힘, 조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것이 더 놀랍다, 조선이 보유한 자력자강의 위력은 이 첨단무기들의 위력을 합친것보다 비할바없이 강하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고 피력하였다.

세상에 없는 명연설

이번 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는 무기전시회의 형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최근에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싸일 등 신형무기체계들을 모두다 전시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고 평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세상에 없는 명연설이라고 격찬하면서 북의 주장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자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인류사상 최고의 명언이다, 주적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며 조선은 조국과 인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의 군력을 강화하고있음을 실증해준 연설이였다고 격찬하고있다.

한금주

불패의 형제적우의와 단결의 위력으로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싸운 3년간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위대한 단결을 뚜렷이 과시한 나날이였다.

중국당과 정부는 갓 나라를 세우고 새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극히 곤난한 형편에서도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선에 수많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보내여 조국해방전쟁을 피로써 도왔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과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공훈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평양에 우의탑을 건립하고 평안남도 회창군에는 조선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중국인민지원군 군인들의 유해가 안치된 렬사릉원을 잘 꾸리고 우의탑과 렬사릉원을 자주 찾아 그들의 위훈을 추억하고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 이로 하여 이 땅에서 벌어진 지난 세기의 피비린 동족간의 싸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누구나 절감한군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숭고한 국제적우의를 귀중히 여기시고 전승절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을 맞으며 여러차례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과 우의탑을 찾으시고 화환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도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면서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지원군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와 공적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조중친선은 세대가 바뀌여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렬사들의 고귀한 넋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바라는 진정을 피력하시였다.

이렇듯 두 나라의 친선과 단결, 형제적우의를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최근 조중친선은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총서기와 여러차례 진행하신 상봉과 회담들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고 변함없는 친선관계로 다져진 조중 두 나라, 두 인민사이의 훌륭하고도 위대한 단결을 국제사회에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2돐에 즈음하여 보내신 축전에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중국인민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의 새로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반중국대결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확고히 지지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였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하며 굳게 다져진 조중친선은 오늘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동서고금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별한 관계,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조중친선은 세인의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나갈것이다.

황혜영

시론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된 전구 및 작전사령부급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한창 벌어지고있다.

여기에다가 얼마전에는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민관군》이 동원되는 대규모의 《을지태극》연습까지 동시에 벌어졌다.

남조선전역이 옹근 하나의 전쟁마당으로 화한셈이다.

어처구니없는것은 이런 불장난소동을 벌려놓고도 그 무슨 《년례적훈련》, 《방어적성격의 훈련》이라고 떠들어대는 남조선군부의 파렴치한 궤변이다.

《호국》훈련이 지난 시기 미국과 함께 강행해온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신하여 해마다 벌려놓는 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번 《호국》훈련과 《을지태극》연습들은 적용된 작전개념으로 보나, 《민관군》이 동원된 수많은 무력과 훈련내용들로 보나 명백히 북침을 노린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들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이런 전쟁연습들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며 조선반도정세를 첨예한 대결국면에 몰아넣는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은 뼈속까지 체질화된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일삼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날로 확산되고있는 대류행전염병사태로 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있다. 이런 속에서도 민생이야 죽든말든 전쟁의 화약내만 질게 풍기고있으니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에 환장하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군사적망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동족을 겨냥한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항의와 규탄만을 초래할뿐이다.

정필

전화의 나날에 꽃펴난 숭고한 사랑과 믿음

복잡다단한 인간생활의 주제들가운데서 사람들 누구나 단연 첫손가락에 꼽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만큼 아름답고 사랑처럼 열정적이며 사랑보다 뜨거운것이 이 세상에 없기때문이다.

하여 력사에는 사랑과 관련한 실로 무수한 이야기들이 전해져내려왔다. 그 갈피갈피에는 사랑의 힘에 받들려 장수가 된 이야기도 있고 사랑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야기도 있으며 혈육간의 눈물겨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야기들도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는 되지 못한다.

과연 어떤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가.

이제 여기에 담게 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하려고 한다.

특 별 명 령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동무의 가족을 꼭 찾아내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시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가 침략세력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질풍같이 남으로 진격하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전선경비사령부의 책임일군에게 내리신 공식적인 특별명령이다.

그 특별명령의 당사자는 대대 장병전원을 이끌고 공화국에 의거입북한 이전 남조선군 대대장 강태무였다.

어떻게 되여 그런 사랑의 특별명령이 내려지게 되였는가,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전쟁이 발발된 후 남조선의 춘천과 홍천지방에서는 이런 피이한 일이 있었다. 수많은 집집마다에서 사람들이 일시에 며칠동안 시신도 없이 이름 석자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곡성을 터치는가 하면 땅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있었던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그들은 모두 1949년 5월에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강태무, 표무원 소속대대 장병들의 가족, 친척들이였다.

인민군대의 질풍같은 반공격에 겁을 먹은 리승만도당은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2개 대대의 장병들모두가 《빨갱이》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되였다는 거짓선전과 함께 가족들을 위로한다느니, 그 무슨 전사자가족대우를 한다느니 하는 피이한 연극까지 놀았던것이다.

결국 그 끔찍한 소문을 곧이듣고 의거장병들의 가족, 친척들은 말그대로 울음바다를 펼쳐놓았던것이다.

그무렵 강태무, 표무원소속대대 장병들은 북변에 자리잡은 어느 한 군사학교에서 인민군대의 정규교육을 받고 전선으로 나갈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북《빨갱이》들이 의거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리승만도당의 거짓선전을 듣고 제사를 지낸 부모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의거한 사람들이 경비대견장을 단 군복을 입고가면 가족, 친척, 친우들과 그곳 인민들은 기뻐하는 반면에 놈들의 기만선전은 백일하에 드러날것이며 가족, 친척, 친우들을 만난 그들은 적들과 용감하게 싸울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의거입북한 전 남조선군 6보병사단 8련대 1대대(대대장 표무원)는 조선인민경비대 제7경비대대가 되여 강원도(남) 춘천으로 그리고 전남조선군 8련대 2대대(대대장 강태무)는 제8경비대대로 편성되여 강원도(남) 홍천으로 진격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진격은 고향과 가정을 향하여 일부러 따로 조직한 사연깊은 길이였다.

죽었다던 아들과 남편, 형님과 오빠들이 살아서 돌아온 름름한 모습을 본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은 눈이 뒤집힐 정도로 놀라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전쟁전보다 몰라볼 정도로 름름하게 달라진 의거용사들을 만나본 동네사람들은 우리 겨레가 안겨살 품은 오직 **김일성**장군님품밖에 없다는것을 가슴깊이 느끼며 너도나도 의용군에 탄원해나섬으로써 대대가 순간에 련대로 편성되는 가슴벅찬 현실을 펼쳐놓았다.

그런데 강태무만은 자기 가족을 만나지 못하였다.

강태무대대의 의거에 당황망조한 적들이 강태무 안해의 행처를 탐문하느라 기를 쓰면서 그의 사진과 함께 15만원의 현상금을 건 광고까지 게시하였기에 안해는 그 마수를 피하여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강태무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으나 가족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고 전선으로 떠나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 사실을 아시고 못내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서울이 해방되자 수령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특별명령을 내리시였던것이다.

감 격 적 인 상 봉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특별명령을 받아안고 전선경비사령부 군관들이 떨쳐나 전화와 편지 그리고 인편으로 그의 행처를 찾기 시작하자 그 소문이 강태무의 안해에게도 닿게 되여 피신생활을 마친 박인숙은 한달음으로 전선경비사령부를 찾아가게 되였다.

전선경비사령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먼저 안전한 곳에 집을 주고 아무리 전선정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전선에 나가있는 강태무에게 련락하여 그가 서울에 들어와 가족들과 며칠간 즐겁게 휴식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강태무의 가족을 인차 안전한 지대인 평양에 소개하여 살게 할데 대한 문제, 적들의 눈을 피해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강태무의 안해를 자동차와 사람을 보내여 사고없이 데려오도록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참으로 육친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크나큰 은정이였다.

이렇게 되여 강태무는 불타는 전호가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가족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였다. 그후 강태무의 가족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월미도방위자들이 마지막격전을 벌리던 그 엄혹한 시각에 호송군관의 인솔하에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더 안전한 후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불편없이 지내게 되였다.

정녕 세계전쟁사에 다시없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강태무와 표무원은 전화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더더욱 단련되고 세련된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전후에도 군력강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승리한 후 28살밖에 안되는 강태무, 표무원에게 조선인민군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강태무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군복을 입고 강사로 사업하였다.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5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내세워 그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력사적사실들을 사적물이나 사진을 가지고 교양하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강태무와 표무원에 대하여 참으로 가슴뜨거운 교시를 하시였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대대장까지 하였지만 진심으로 수령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동경하였기때문에 1949년 5월 자기 대대 장병들을 데리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입북하였다. 그때 그들을 환영하는 사업을 굉장히 하였다. 그들의 의거입북은 새 조선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 그후 그들은 인민군대에 편입되여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적들과의 싸움도 잘하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은 인민군대에 있을 때 소장의 군사칭호를 달고있었으므로 복대시킬 때에는 중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고 승용차를 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속에서 강태무와 표무원은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공화국영웅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그들은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영생의 언덕에 서있는 그들은 지금도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있다.

《어떤것이 가장 뜨겁고 아름다우며 공고한 사랑인가. 그것은 동지애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그 한사람한 사람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이다!》

본사기자 리 연 선

진달래꽃다발에 비낀 녀사의 소원

주체38(1949)년 5월초순 강태무, 표무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들의 의거입북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시키려는 남북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앞당기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환영사업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께서는 의거자들의 애국적행동을 높이 평가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드시여 그들에 대한 환영사업을 몸소 조직하시였다.

녀사께서는 강원도를 비롯한 각지의 녀성들이 의거자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특히 렬차가 멎는 역마다에서 의거자들에게 음식과 더운물을 준비하여 성의껏 환대하여줄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의거한 장병들은 38°선을 넘어선 때로부터 각지 수많은 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에 넘치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철원에서는 의거자들을 환영하는 솔문을 만들고 군중문화회관에서 성대한 환영대회를 열었으며 원산에서도 수만명의 환영군중이 참가한 로천대회가 진행되였다.

렬차가 멎는 역전마다에서는 꽃다발과 공화국기를 든 환영군중들의 만세환호로 들끓었으며 청년들은 의거자들을 목마에 태워 축하해주고 녀성들은 닭을 잡고 떡을 쳐가지고나와 그들을 대접하였다.

의거한 장병들을 태운 렬차가 평양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시각 녀사께서는 밤을 새워가시며 손수 진달래꽃다발을 마련하시였다.

진달래, 간고한 항일혁명의 그날로부터 언제나 못잊어 마음속에 피우고피워오신 아름다운 진달래는 녀사께 있어서 정다운 조국의 상징이였다.

하기에 녀사께서는 많고많은 꽃들중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흠모하여,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동경하여 찾아오는 그들에게 뜻이 깊은 진달래꽃다발을 안겨주실 생각을 하게 되시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평양에 도착한 표무원, 강태무대대장과 병사들은 진달래꽃다발을 가슴 한가득 받아안게 되였다.

행사가 끝난 후 댁으로 돌아오시며 녀사께서는 말씀하시였다.

통일의 그날이 어서빨리 와서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통일을 경축하는 행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참으로 녀사께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은 없으시였다.

본사기자 김 소 담

강태무는 공화국인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대대를 이끌고 의거입북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정당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나라, 당은 오직 조선이고 조선로동당뿐이다.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6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사회주의위업이 직면하고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명되고 사회주의적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리론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시대 인민들이 지녀야 할 세계관과 인생관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정치방식, 근본리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의 영원한 투쟁의 표대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하시면서 이를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되였으며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공화국이 전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있지만 언제 한번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쳐올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투쟁하여왔기때문이다.

실지 공화국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치였다.

공화국의 70여년행로에서 맞이한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시대, 새로운 발전의 시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공화국인민들은 승리와 영광의 표대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더 확신성있게, 승리적으로 진척시켜나가고있다.

김 용 삼

세련된 정치예술, 찬란의 목소리 (1)

당대회구호를 대신한 3대리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드는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자는것을 제기하시였다.

당대회구호를 대신한 이 3대리념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정치리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가 어려있는 독특한 당대회구호를 놓고 세인은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애민지도자의 3대리념, 인민의 충복임을 부각시킨다!》

국력을 과시한 심야열병식

조선로동당창건 75돐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기념열병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모두가 관례를 깨뜨리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진행되였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공화국의 황홀한 밤들이였다.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과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 만천하에 남김없이 과시되는 이밤들을 보면서 세인은 이구동성으로 격찬과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조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더 밝고 황홀하다!》

당중앙도락에서의 경축연회

지난 9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뜨락에서는 평범한 각계층의 근로자들이 모여앉아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를 가지였다.

고령의 녀방송원, 박사로부터 철부지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령도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한식솔처럼 둘러앉은 류다른 좌석이였다.

이곳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령도자와 어울려 웃고 기뻐하는 이채로운 풍경은 공화국에서 령도자와 제일 가까이에서 사는 복받은 주인공들이 바로 인민임을 말해주는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인이 터친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이런 나라의 인민으로 살고싶다!》

본사기자 리 경 월

모두다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로!

함께 부르신 《동지애의 노래》

어느해 겨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을 위하여 뜻깊은 연회를 마련해주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예술단성원들이 어려움도 잊고 맛있는 음식들을 드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한전호속의 혁명전우로, 한식솔로 품에 안고있다고 하시면서 총련에서 일심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총련도 조국과 같이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일심단결은 조국의 얼굴이고 총련의 얼굴입니다. 조선의 모습도 일심단결이고 총련의 모습도 일심단결이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은 믿음과 기대의 교시를 받아안은 총련일군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이 중앙지도부를 굳게 믿고 중앙의 지도를 잘 받들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련애국사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뜨거운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환희와 격정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여올 때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한 총련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동지애의 노래》를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을 올리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외람된 소청을 나무람할 대신 환히 미소를 지으시며 오늘은 총련 현본부위원장들과 《동지애의 노래》를 같이 부르겠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이어 그이를 한가운데 모시고 총련일군들은 주탁둘레에 둥그렇게 서서 《동지애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서로서로 손을 맞잡기도 하고 어깨를 겯기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총련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애국위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신념의 맹세가 불타오르고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연회참가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자신께서는 총련일군들을 혁명동지로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자주통일위업의 전환기를 마련하시는 길에서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지난 10년로정에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지니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의 자욱도 깊이 새겨져있다.

조국통일!

외세에 의해 삼천리강토의 허리가 뭉청 잘리워 두동강이 난 그날로부터 장장 70여년세월 민족성원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겨레의 최대숙원.

이렇듯 절절한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시려 제일 마음쓰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 누구보다도 삼천리강토와 겨레를 사랑하시기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다.

주체적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

흘러온 10년세월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돌이켜보면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주체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으로 보시고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세발전의 매 시기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이 철두철미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나갈수 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새해를 맞으며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들을 비롯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대회보고들에서 엄숙히 천명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 투쟁과업들은 언제나 공화국인민들은 물론이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의 가슴가슴을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주체105(2016)년 5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거룩하신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이날 보고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헤아리시고 세차례의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시고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북남선언들을 채택케 하시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주시였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위업수행에서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여있지만 겨레의 조국통일대행진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올해 정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도 지금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을 밝히시였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의해 곡절과 시련속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북남관계해결의 근본원칙 천명

이번에 공화국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은 겨레의 가슴마다를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한 불타는 열의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명백히 하시고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는것, 북남관계를 바로 해결하자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여야 한다는것,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과 그 해결방도가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의지를 안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지금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된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은 북과 남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은령도자는 정치계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국제사회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신 세계정치계의 거성이시다. 그이께서 비상한 결단과 능란한 협상력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해 사람들은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항상 마음이 든든하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조선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실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찬탄의 목소리들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에서 통일의 새 아침은 기어이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백두산과 함께 열린 김정은시대 2기》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인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평화이음》)이 언론단체인 《도서출판 615》와 함께 《백두산과 함께 열린 **김정은**시대 2기》를 출판하였다고 한다.

2017년에 결성된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은 올해에만도 판문점선언리행 및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반대투쟁, 남북교류협력재개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비롯한 통일운동과 함께 문학작품발표활동도 적극 벌리고있는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이다.

특히 《백두산과 함께 열린 **김정은**시대 2기》를 집필한 《평화이음》의 필자는 지난 시기 《**김정일**국방위원장과 21세기의 북》, 《미국과 맞장뜬 나라들》, 《북의 미싸일전략》 등 공화국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집필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반통일책동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북남선언리행을 요구하는 특별기고문들을 발표하여 남조선에서 통일열기를 고조시켰으며 《북바로알기》강연회, 북전문싸이트 《NK투데이》 등에 출연하여 공화국의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었는가 하면 2018년에 도서 《**김정은**》, 2019년에는 도서 《**김정은**》(중보판)을 집필하여 남조선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다.

필자는 이번에 집필한 도서에서 2012년부터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한 시기까지를 《**김정은**시대 1기》로 규정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력적인 령도로 경제발전과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안아오시고 그 힘으로 2018년 조중, 남북, 조미관계변화를 이끌어오신데 대해 서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은**시대 2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으로의 백마행군과 함께 시작되였다고 하면서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와 2021년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해 《**김정은**시대 2기》의 구상을 확인할수 있다고 서술하였다고 한다.

특히 백마를 타고 흰눈을 맞으며 백두산을 오르시는 **김정은**총비서의 모습은 놀라움을 가져다주었다.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뒤덮어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백두산처럼 북은 이제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자력으로 정면돌파할것이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령역에서 미국을 압도하겠다는것이 **김정은**총비서의 구상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면서 **김정은**총비서의 구상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대변혁의 5년》이라고 제시한 5년안에 모두 실현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고 한다.

현재 도서는 서울의 《교보문고》를 비롯한 주요도서관들에서 광범히 판매되고있다고 한다.

통일의 령수, 민족의 태양을 흠모하고 따르는 민심의 대하는 도도히 굽이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 (2015년)

언제나 조국통일을 위해 심려하시며

사라진 고민거리

주체78(1989)년 3월말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의 문익환목사를 만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문목사에게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석님은 조국통일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는 민족의 구세주이시라고 거듭 되뇌이고난 그는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고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 같은 외세를 등에 업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매판자본가는 반대하여야 하지만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려고 하는 민족자본가는 다 포섭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 문목사는 사실 자기는 자본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때문에 주석님을 찾아왔는데 민족자본가들과도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니 조국통일은 벌써 이루어진것이나 다름없다고 기탄없이 소견을 표시했다.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있는 문목사의 얼굴에서 통일을 위해 바쳐진 그의 고민이 얼마나 깊고 큰것인가를 헤아리고계시였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것을 종자로 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창작되여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던 주체81(1992)년 5월 무렵이였다.

어느날 창작가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운명문제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작품의 형상에 대해 진지하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데서 문학예술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길로,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에서는 민족주의자, 종교인, 기업가를 비롯하여 각이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취급할데 대해 이르시였다.

한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안락과 영달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사람,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진 사람도 있을수 있지만 그가 어떤 길을 걸었든 자기의 허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라와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애국의 길을 걷게 된다는것을 예술적화폭에 담아야 한다는 가르치심이였다.

본사기자

통일을 불러

공화국의 첫 교육상 (2)

남조선에서 진행되고있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기 위한 합동사업에 신민당 당수로서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기대는 백남운선생을 크게 감동시켰다.

하여 선생은 공산당, 인민당과 합동하여 근로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성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러나 외세와 그에 야합한 반동들의 집요하고도 간교한 리간술책에 넘어가 갈팡질팡하던 선생은 끝내 《분렬주의자》, 《우익기회주의자》로 지탄받고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아, 나의 운명은 이렇게 끝장나고마는가.

선생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누구도 돌아보는이가 없었고 친구들까지도 그를 외면하였다.

그의 정치적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잠 못이루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합동문제에 대한 백남운선생의 립장과 태도가 아무리 그릇된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민족적량심도 있고 애국심도 지니고있는 그가 여전히 근로민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백남운선생은 민족앞에 두번다시 태여나게 되였으며 1947년 5월 광범한 중간계층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사명을 지닌 근로인민당이 결성된 후 부위원장이라는 중임을 지니게 되였다.

백남운선생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백남운선생에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할데 대한 초대장도 보내주시였다.

이것은 그에게 다시없는 행운이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게 되였고 그처럼 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다.

후날 백남운선생은 그날의 감회를 두고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돌이켜보노니 5천년을 헤아리는 파란많은 배달민족의 갈피속에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경각의 시기는 허다했건만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가엾은 운명을 건지고저 재산의 유무와 귀천을 막론하고 사심없이 무릎을 마주한적 언제 한번이나 있었던가. …

묻노니 애국의 뜻은 품었어도 외세에 짓밟히고 권세에 유혹되여 본연의 응지는 간곳없이 뿔뿔이 흩어져 아귀다툼만 일삼던이들 개개인의 량심을 일깨워 고금동서에 다시없을 애국애족의 대회합을 마련해주신분은 과연 뉘신가.

아, 그분은 천연암벽도 단숨에 녹여내릴 열화같은 인간애와 무변대해에도 견줄수 없는 넓은 도량, 한없이 소탈한 풍모, 하늘도 머리숙일 거대한 포옹력과 고결한 덕망으로 겨레를 한품에 휩싸안고 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이시다. …》

꿈같이 흘러간 련석회의의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사상리론적예지, 고결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 선생은 그 품을 떠나서는 애국은 고사하고 자기 개인의 운명도 지키고 빛내일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하기에 선생은 공화국의 품에 영원한 삶의 닻을 내리였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의 총선거에 의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던 주체37(1948)년 9월초 어느날이였다.

이날 백남운선생을 집무실로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수립되는 공화국정부가 실시할 교육정책의 인민적성격과 내용들이며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백남운선생에게 선생은 과학자인데 자기의 전문과는 좀 어긋날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 후대교육과 간부양성사업을 맡아주어야 하겠다고, 나라의 후대교육을 담당한 공화국 교육상을 맡아주면 고맙겠다고 하시였다.

선생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너무도 아름찬 중임앞에서 망설이던 선생은 가까스로 용기를 내여 어버이수령님의 그 신임은 고맙지만 능력이 딸려 감당해낼것같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꼭 이 사업을 맡아주셔야겠다고, 새 나라, 새 사회건설에서 선생같은 지식있는 간부들이 매우 귀중하다고, 우리 지혜와 힘을 합쳐 일제가 남긴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시해나가자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며칠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는 력사적인 자리에서 백남운선생을 공화국의 첫 교육상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그날 밤 선생은 자기가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이 꿈만 같고 믿어지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망국노의 처지에서 식민지지식인의 치욕도 맛보았고 원쑤들이 살판치는 남녘땅에서 번뇌에 찬 나날을 보낸적도 있는 자신이 공화국의 새 력사와 더불어 그처럼 값높은 삶을 지니게 될줄 어찌 상상조차 할수 있었겠는가.

그럴수록 근심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백남운선생의 이런 남모르는 마음속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교육상으로서 민족간부양성과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본사기자

시

이 길밖엔 더는 없다

강은별

나는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
오늘 더듬어 펼쳐보노라
76년 민족의 분렬사를
갈라져 사는 8천만겨레의 절통함이여
두동강난 삼천리강토의 몸부림이여

무엇때문에 과연 무엇때문에
이 아픔 이 비극 오늘까지 겪는것인가
세대를 몇번 넘고 세기를 이었건만
어이하여 분렬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피를 나눈 혈육들 등지고 살아야만 하는가

바로 외세때문이다
우리 강토 둘로 갈라놓은 저 악한들로 하여
반만년 단일민족이 남남처럼 갈라져 사는
이 수치 이 통분함
가슴에 조선민족의 피가 끓고있다면
우리 어찌 용납할수 있단 말이냐

생각해보라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정녕 무엇을 주었던가
헤여져 사는 아픔에 몸부림치는
비극의 운명밖에 더 있다더냐
분렬된 이 나라 우리 민족앞에
한번이라도 반성해본적 있었더냐

개탄하지 않을수 없구나
우리 민족이 영영 분렬되기를 바라는 외세에게
민족의 통일중대사를 청탁한다니
우리 민족이 영영 약소하기를 바라는 외세에게
민족의 장래를 의탁하겠다니

장구한 민족사를 뒤돌아보라
숭미사대가 남긴것은 치욕과 굴욕
외세의존이 낳은것은 예속과 모멸뿐
민족수난의 근원 들어내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개선과 겨레의 통일도 없거니

탐욕스러운 외세가 아니라
민족의 지향, 민족의 뜻 따라야 하리
포악무도한 외세가 아니라
피를 나눈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리

그렇다!
민족자주—이는 민족의 지향이며 요구
겨레의 존엄과 강성의 길이기에
우리가 갈길은 오직 하나
민족자주 이 길밖에 더는 없다

군사적대결기도의 뚜렷한 발로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편견적인 시각과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무력증강책동 그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북이 두려워하는 군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방예산》을 해마다 증액시키고 외부로부터 첨단군사장비구입과 자체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군부당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정찰위성을 개발하고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끌어들였으며 각종 탄도미싸일들의 개발과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왔다는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과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초소형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정찰기,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와 조기경보레이다, 이지스구축함레이다를 도입하는것과 함께 탄도요격미싸일과 장거리요격미싸일들의 보유량을 기존의 3배로 확대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 누구보다도 《대화》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뒤돌아앉아서는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식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 무력증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다.

군사비증액과 그에 따른 무력증강책동은 대결광신자들의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행태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언론도 《정부의 〈묻지마〉식 군비증강이 절정에 달하고있다. 군사연습의 강행과 래년도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을 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기대마저 싸늘하게 식어가고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단계적군축을 추진키로 합의해놓고 실제로는 사상 최대규모의 군비증강을 해온 〈언행불일치〉로 일관해왔다.》고 폭로하였던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정세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얼마나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끼쳤는가 하는것은 과거 보수《정권》들의 동족대결책동과 그 후과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대결소동은 지난 시기 대결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때와 조금도 다를바없는것이다.

명백히 동족에 대한 적대의사와 공격기도를 내포하고있는 무력증강소동은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머리속에서는 오직 동족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생각밖에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백해무익한 존재

최근 남조선보수세력들이 현 《정부》의 그 무슨 《대북저자세》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고 한다.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들이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노력과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자위적인 군사행동들을 놓고 취하는 당국의 태도에 대해 북에 심리적지배를 당하고있다, 북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비난하고있는것이다.

역시 보수패당의 대결본색은 어디 갈데가 없는 모양이다.

지금 북남관계가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러한 북남관계가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자면 우선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를 버리고 무턱대고 동족을 걸고드는 불순한 언행부터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이 그 무슨 《대북저자세》를 떠들며 당국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는것은 결국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는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지난 시기 남조선보수패당이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에 얼마나 큰 해독적후과를 끼쳤는가 하는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6.15시대와 함께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책동으로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되돌아가고 조선반도에 엄중한 정세까지 조성되였던 실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런 보수패당이 저들의 죄악에 찬 행적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것은 그야말로 죄악우에 죄를 덧쌓는 범죄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의 보수패당이야말로 그대로 둘수 없는 동족대결세력, 반통일세력, 반평화세력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진짜이름은 〈살상무기전시회〉》

얼마전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가 서울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의 성격과 목적, 그 위험성을 폭로하는 광고물을 실었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이름은 《살상무기전시회》

여기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들이 어디서,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방위산업전시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COVID-19》대류행과 기후변화상황에서도 전세계는 무기거래에 한해 약 1 180억US$가량을 쓰고있습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9년기준)

◇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 100대 무기업체의 2018년 매출은 무려 4 200억US$, 이중 절반정도가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거두어들인 수익, 이들은 필연적으로 안보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군사적긴장이 높을수록, 정치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전쟁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 아프가니스탄의 눈물

미국의 침공으로 오래동안 고통받아온 아프가니스탄사람들, 지난 20년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약 24만명, 전세계 아프가니스탄난민 약 260만명, 국내실향민 약 350만명(유엔난민기구 2021.8.16)

◇ 전쟁의 고통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이 있었던 지난 20년동안 세계방위산업체들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보잉 974.97% 상승, 레이시온 331.49% 상승, 록히드 마틴 1 235.6% 상승, 제너럴 다이내믹스 625.37%…

지난 20년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한 국가는 바로 미국, 아프가니스탄 무기수입의 74%는 미국산.

◇ 《싸드》

미국미싸일방어체계(MD)의 핵심무기, 미국은 지금까지 MD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왔고 남조선과 일본이 이에 동참해주기를 꾸준히 바라왔습니다.

《싸드》는 남북간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에선 군사적효률성이 낮습니다.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고, 각종 결함이 줄줄이 보고되는 무기죠.

◇ 미국산무기수입 세계 4위 남조선

지난 10년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랄리아, 아랍추장국련방에 이어 네번째로 미국산무기를 많이 구입한 남조선입니다.

본사기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정당한 투쟁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0월 20일 서울과 광주, 부산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26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투쟁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총파업참가자들은 《110만 총파업의 닻은 올랐다!》 등의 대형현수막들과 손구호들을 들고 거리행진과 도심집회, 기자회견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벌리면서 로동자들의 삶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한다.

사실 남조선의 현 당국은 2017년《대통령》선거에서 반칙과 특권, 부패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남조선당국은 경제악화를 구실로 재벌들의 눈치를 보면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비롯한 선거공약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있다고 한다.

일자리형편만 보아도 올해 상반기에 남조선에서 사실상 실업상태로 있는 사람은 491만 6 000여명으로 외환위기이후 최고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신문 《서울경제》는 《벼락거지, 주린이, 령끌투자(령혼까지 투자한다는 뜻)와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매일 뉴스에 등장한다. 저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고 개탄하였다.

뿐아니라 매해 수많은 로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있으며 1 100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로동자들은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도 온전한 살림집 한채도 장만할수 없는 등 비참한 생활고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로총의 총파업을 《불법시위》로 몰아대면서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놀음을 벌리고있으며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겠다고 떠들어대여 각계의 비난을 받고있다.

어이없는것은 《국민의 힘》을 위시한 보수패당들이 《귀족로조의 행태가 도를 넘는다.》, 《민주로총은 탈리반》이라고 매도하면서 총파업조직자들을 악법들에 걸어 고발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는것이다.

특히 홍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의 《대통령》예비후보라는자들은 저들이 집권하면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민주로총을 때려잡겠다.》, 《민주로총을 해체하겠다.》고 고아대며 로동자들의 합법적인 조직과 생존권투쟁을 무지막지하게 탄압말살할 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이자들의 행태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권력을 틀어쥐고 반인민적, 반로동적정책과 파쑈악법으로 근로대중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억압해온 《국민의힘》의 추악한 본성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정치전문가들은 생존권확보와 일할 권리를 담보받기 위한 민주로총의 투쟁이 각계층의 지지와 성원밑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배영일

배척받는 정치판, 구린내풍기는 보수야당

무관심속에 진행되는 《비호감도 올림픽》

남조선언론들이 다음기 《대선》이 《비호감도 올림픽》, 《비호감 대선》의 양상으로 전개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선거날이 몇달앞으로 가까와올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상징후가 관측되고 래년 《대선》에서 투표률이 급락할 사태가 초래될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있다.

여야당이 지지표 하나라도 더 긁어모으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민심의 반응은 동지섣달 불죽은 아궁처럼 싸늘하기만 하다.

하기에 언론들은 《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압도하면서 유권자들속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뽑을 사람은 없다.》는 이것이 현 정치권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불만과 환멸의 표시인것이다.

여야당이 웨치는 선거구호인 즉은 《정권계승》, 《정권교체》뿐이고 민생은 뒤전이다.

《국민의힘》의 《대통령》예비후보인 윤석열만 놓고보아도 《120시간로동》, 《아프리카손로동》, 《부정식품》 등의 발언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1일1실언후보》, 《밑바닥인생을 모르는 금수저》라는 비평을 받고있다.

여기에 《도리도리》, 《쩍벌》, 《왕(王)자론난》,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는 망언 등 하는짓이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젓게 하는것뿐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한 정치인이 《윤석열은 비호감을 높이는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있다.》고 야유하였겠는가.

홍준표 역시 비호감도에선 윤석열과 결코 짝지지 않는다.

과거 《돼지발정제》발언으로 《막말홍준표》라는 별칭을 얻은 그는 얼마전에는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선 민주로총을 《대통령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때려잡겠다.》고 폭언하여 각계의 비난을 자아냈었다.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파헤칠수록 구린내나는 부정부패문제만이 아니라 각 정당들이 보여준 니전투구를 방불케 하는 경선싸움이나 빈수레선거공약광고 등은 갈수록 사람들의 정치혐오감만 높여주고있다.

그런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설치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정치무관심을 넘어 정치환멸기운이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중도층, 무당층이 40%대에 이르렀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는 호감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60%선에 닿았다고 한다.

그 누구를 탓할것도 없다.

민생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파적리익과 치부를 위해 민생우에 권력을 올려놓는 그런 정치간상배들이 민심으로부터 배척을 받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진흙탕싸움의 최종승자는?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예비후보들간의 대립과 마찰이 최종후보선출을 결정하는 결승선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치렬해지고있다고 한다. 후보들은 후보들끼리 《나만이 정권교체가능한 후보》라고 광고하며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여념이 없고 그 지지자들은 또 그들대로 폭행, 허위소문류포 등으로 판소리에 장구장단치듯 한다는것이다.

그중에서도 윤석열과 홍준표의 대결이 가관이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망언목록》을 공개하면 윤석열은 홍준표의 《막말목록》을 꺼내든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본인, 처, 장모의 부정부패를 물고늘어지면 윤석열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허위사실류포혐의, 특수활동비횡령혐의 등 홍준표의 과거범죄경력을 휘둘러댄다. 간단히 말해서 홍이 《윤》 하면 윤이 《홍》 하는 식이다.

저들끼리 잘났다못났다 아웅다웅하는것이 꼴사나웠는지 류승민이나 원희룡도 《나도 있다.》는 식으로 둘다 같고같은 전과자, 부패분자라고 께끼군 한다는것이다.

《선수》들의 열성에 《응원자》들이 가만있을수 없는것이다.

윤석열을 물어메치겠다고 홍준표와 류승민이 《단일화》한다, 이번 당원투표에서 윤석열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나돌고 지지자들사이에 욕설과 폭행까지도 빈번이 벌어진다고도 한다.

한편으로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도 옥신각신 신경전을 벌렸다고 한다.

윤석열은 여당의 《대선》후보와의 《1:1》 가상대결을 념두에 두고 여론조사 및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홍준표와 류승민은 그렇게 4번이나 물어볼 필요가 없다, 능력있는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고 옥박질렀다고 한다.

종당에는 홍준표의 제안에 손을 들어준것으로 되였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당심은 윤, 민심은 홍》으로 갈라졌다는 소리도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도덕성》과 《능력》을 시위하는 류승민이나 원희룡도 무시할것은 못된다고 한다.

과연 승자는 누구이겠는가?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권력쟁탈이다.

하지만 저들끼리도 능력과 자질은 둘째치고 인격과 도덕의 한계를 넘어 저렬하고 야비한 갖은 인신공격과 인격무시를 능사로 하는 저들, 진흙탕속의 개싸움도 무색할 정도로 제편끼리 물고뜯는 저들이 바라는 권력이라는것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하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개누리당》예비후보의 《개사과》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윤석열이 한 이 망발이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하였다.

바빠맞은 윤석열이 《사과》놀음을 벌렸는데 그 또한 민심에 대한 야료이고 우롱이여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표표한 얼굴에 《유감》이라는 외마디표현으로 얼렁뚱땅 《사과》놀음을 굼땐 윤석열이 돌아앉아서는 인터네트에 손에 사과를 쥔 자기의 돌사진과 자기 집의 애완용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놓았던것이다.

나는 사과를 받으면 받았지 할줄 모른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개나 먹어라.

이것이 사진들에 비껴있는 윤석열의 거만한 태도이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은 개나 갈다는것이다.

그러니 누군들 분노하지 않을수 있으랴.

윤석열이 《실무진의 실수》라고 변명을 하지만 지금까지의 언행을 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본성이고 본심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도리도리》, 《쩍벌》과 같은 정돈되지 못한 행동을 봐도,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손발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것》, 《주 120시간로동》, 《주택청약통장을 모르면 치매환자》와 같은 망언들을 들어보아도 그렇게 단정할수 있는것이다.

하기는 달리 될수 없는 윤석열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던자들, 살인악당 전두환을 《영웅》으로, 광주인민봉기를 《폭도들의 란동》으로 락인한 그런 무리속에 스스로 몸담근 윤석열이고 그런자들이 《대선》예비후보로 내세운 윤석열이고보면 그의 망언이 결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는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이미전에 남조선민심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가리켜 《개누리당》이라고 하더니 인민들에게가 아니라 개에게 《사과》를 하는 《국민의힘》의 《대선》예비후보 윤석열을 보면 《개누리당》의 본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자가 정치를 한다면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전두환에 버금가는, 아니 더욱 음흉하고 횡포하게 인민들을 탄압할것이 분명하다.

윤석열을 두고 《법복을 입은 전두환》이라고 한 남조선민심의 비난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한일혁

만평 《사과? 너나 먹어》

파멸을 재촉하는 군국주의난파선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려는가?

새로 등장한 일본당국이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 극우보수적인 안보관만 보아도 그 답을 알수 있다.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력설하고 《안보불안》을 조장시키는가 하면 신임수상은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봉납하고 전임수상들은 뻐젓이 참배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류포시키고 《독도령유권》을 고창하면서 력사외곡, 날조를 응당한것으로 여기고있다.

시작부터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을 숨기지 않는 일본당국을 보면 개는 나는 족족 짖기 마련이라는 속담그대로라고 할수 있다.

패망이후 력대 일본당국이 피묻은 군화발로 대륙을 짓뭉개던 과거를 되살려보려고 군국주의부활을 위해 천방지축 날뛰여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더우기 이전 아베정권과 스가정권은 조선민족에 대한 체질적거부감과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일본을 군국주의과거에로 되돌려세우기 위해 발악하였다.

비방울을 보면 홍수를 짐작할수 있다고 그뒤를 이은 현 일본당국이 첫걸음부터 저 지경이니 장차 일본이 어떤 길을 가겠는가는 명백한것이다.

지금의 일본정국을 투시해보면 봉건사무라이들의 불만에 찬 눈초리와 피묻은 칼날을 타민족, 타국에로 돌리려고 미약한 《개혁》을 실시하고 조선을 무력으로 타고앉아야 한다는 《정한론》을 제창하던 《명치》시대를 련상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조선반도와 전 중국령토, 동남아시아반도, 동부씨비리를 비롯한 아시아의 넓은 지역과 태평양지역을 련결하는 《대동아공영권》망상을 실현한다면서 령토팽창야망에 들떠있던 일제패망말기의 년대가 떠오르기도 한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군사봉건적포악성과 강도적략탈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일본의 군국주의는 내란의 불속에서 삐여져나왔고 전란의 불과 함께 날뛰다가 종당에는 제가 지른 불에 망하고말았다.

일본당국에 묻건대 왜왕과 《대동아공영권》을 위해 《사꾸라》처럼 《옥쇄》한 군국주의망령들의 전철을 한사코 답습하려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방비와 그가 산생시키는 무모한 《자위대》무력, 《보통국가》로 변신하기 위해 모지름쓰는 《평화헌법》개정망동, 피로 얼룩진 과거를 미화분식하는 력사외곡책동…

팽배해진 군국주의광기와 재침열기를 터뜨리기 위한 돌출구를 찾아 몸부림치는 섬나라족속들이다.

그럴수록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인류의 정의와 량심의 대륙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것이고 종당에는 파멸의 해일에 잠겨 영영 헤여나오지 못하고 수장될것은 불가피하다.

일본은 언제까지나 날바다에 떠다니는 군국주의난파선으로 남아있을것인가.

강철

조선특유의 자랑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모른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그 무슨 일을 하나 함에 있어서 수지타산에 앞서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가를 먼저 따진다.

새로운 계산방법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쓰시였다.

국가의 엄청난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그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웃음소리를 먼저 가늠해보며 사랑의 정치, 은덕의 정치를 펼치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

바로 이것이였다. 이는 《발전》과 《문명》을 떠드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것이다.

적은 투자를 들여 보다 많은 리윤을 얻는것은 리윤추구와 자본축적의 어길수 없는 법칙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인민의 리익을 우선시하고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식료가공공업부문 협의회를 조직하셨을 때의 일이다. 긴장한 자금사정으로 어느 한 공장건설을 좀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해당 부문 일군들의 의향을 아신 그이께서는 물론 공장을 하나 짓자면 타산을 해봐야 한다, 그러나 타산을 할 때가 따로 있지 아무때나 수판알부터 먼저 튀기지는 말아야 한다, 모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보라, 천이 없으면 자기 단벌옷이라도 뜯어서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태를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는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였다,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랑을 가져야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줄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들을 위해서는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계산방법이라고 하시였다.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불같은 진정을 터놓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며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해줄데 대한 육아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처럼 어려운 나날에 슬하의 자식들을 위하여 더 크고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두어깨에 걸머지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회의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피해하기 힘든 현실

국가도 당도 인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령도자의 인민사랑은 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와 그들에게 덕이 얼마만큼 차례지는가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을 낳았으며 이 땅우에 전설같은 현실들을 꽃피우고있다.

공화국에만 고유한 인민적시책들에 의해 치료받을 걱정, 배울 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민들,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에게 해마다 가슴가득 안겨지는 사랑의 선물들, 또 매달 국가로부터 눅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기초식품, 비누와 치약, 치솔을 비롯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

언제인가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은 서유럽의 한 국회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많은 자금을 들여 생산한 소비품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공급해준다니 이것이야말로 대포를 쏘아 참새를 잡는격이 아닌가. 위대한 령도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이 부럽다.》라고 말하였다.

이와는 반면에 7년전 300여명의 무고한 어린 생명을 바다속에 수장시킨 《세월》호사건직후 남조선의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었다.

《…정작 이 나라의 국정최고책임자의 입에서 튀여나온건 〈세월〉호참사이후 국내소비위축을 걱정하는 고상한 설교였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에게 진정어린 위로와 보상을 못해줄망정 경제위기와 침체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최근자료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초보적인 로동보호, 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고있으며 하루평균 240여명에 달하는 산업재해피해자들이 생겨나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지타산이 없는 공화국의 현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본사기자 김춘경

인민적시책속에 행복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인민들

독자문답

재카나다동포 송일흥선생이 제기한 질문

사회주의의학을 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가

예방과 치료는 다같이 의학의 기본내용을 이루지만 이 두 측면이 사람들의 건강보호증진에서 가지는 의의는 같지 않다.

보다 선차적인 문제는 예방을 잘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치료가 일단 생긴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예방은 질병의 근원자체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되기때문이다.

예방과 치료의 이러한 호상관계를 어떻게 보고 대하며 이 두 측면가운데서 어느것을 기본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본성과 의학의 성격, 사명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며 사람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무하게 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의학이 사람들을 질병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의학의 기본사명으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예방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으로 되고있는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의사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예방대책을 세워가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인민적보건정책의 우월성은 병치료의 권리와 요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서뿐 아니라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시책에서 더욱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55(1966)년 10월 20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에서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이라고, 그러므로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밝히시였다.

공화국의 예방의학제도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의학적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보건법에는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발전시킨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전민을 대상으로 예방치료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그러나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의학이 하나의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의학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숭고한 사명에서 벗어나 영업화되여 하나의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고있으므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방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치료에 치중하고있다.

예방의학은 오직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방의학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차이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직매점에 넘치는 과일향기

평양시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봉사기지들이 많다. 려명거리에 위치한 모란봉대동강과일직매점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곳 직매점에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과일들과 갖가지 과일가공품들을 사람들에게 봉사해주고있다.

풍요한 가을은 온갖 열매가 무르익는 계절이라 올해에 수확한 신선한 과일들과 과일가공품들을 봉사하고있는 직매점안은 그야말로 과일향기로 가득차있다.

천연그대로의 맛과 향기가 넘치는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과일가공품들은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사과와 배 등 신선한 과일들을 봉사해주는 직매점의 1층을 지나 2층에 오르면 이곳에서는 손님들에게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한 맛좋고 영양가높은 과일가공품들을 봉사하고있다.

사과단물, 배단물, 종합과일단물, 과일단졸임, 과일단묵, 과일드롭프스, 탄산사과주, 사과발효식초…

그 품종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사과발효식초는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오늘 탄산사과주를 사러 왔습니다. 진짜과일주는 바로 우리 사과로 만든 탄산사과주랍니다.》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맛본 과일가공품들의 맛과 향기에 대하여, 그 약리적효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곳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여러가지 과일가공품들중에서도 사과단물과 배단물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 그리고 기능성음료들인 은행잎탄산단물, 단나무열매탄산단물은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직매점의 리혜심경리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생산한 갖가지 과일들과 대동강과일가공종합공장에서 만든 과일가공품들을 인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한다.

직매점에 넘치는 과일향기!

단순히 자연의 열매가 풍기는 향기만이 아니다.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절세위인의 은정이 따스하게 스며있는 이 땅 어디서나 풍기는 사랑의 향기, 행복의 향기인것이다.

본사기자 림광훈

영화외 현실

따뜻한 우리 집 이야기

공화국에서 다른 영화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가 인기를 모으고있다.

이 영화가 창작된지 몇해가 지났지만 오늘도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영화는 나어린 처녀의 몸으로 여러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 훌륭하게 키워내세움으로써 만사람을 감동시킨 강선땅의 《처녀어머니》를 형상하고있다.

영화의 주인공 정아의 가슴속에는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있다. 영화에는 정아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당책임일군이 하는 이런 대사가 있다.

《이자 방금 학교문을 나선 그에게 깃들기 시작한 그 소중한 꿈이란 무엇이겠소. 온 나라 애육원, 육아원을 찾고찾으시며 부모없는 아이들의 마음에 그늘이 질세라 늘 마음을 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어깨에 실려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싶은 그 마음이 아니겠소.》

이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꿈을 안고 일신의 편안이나 향락이 아니라 부모잃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주인공 정아.

영화는 집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람홍색공화국기가 창공높이 휘날리는 이 땅은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크나큰 집이라는 이야기로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따뜻한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공화국의 현실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영화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화국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어디서나 활짝 꽃펴나고있다.

이름과 직업,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저마다 부모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혈육, 친자식이 되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며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친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진정을 바쳐가는 청춘남녀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사람들모두가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치는 정이 하도 따뜻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나온 영화의 내용도 그처럼 정에 넘치고 따뜻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고상한 정신세계,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공화국의 참모습은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과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어 서로 죽일내기를 하며 인간성이 말살되여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집 이야기》,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이 이야기는 서로 도우며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끔찍한 생존경쟁무대

요즘 남조선에서 상영되고있는 어느 한 TV극에 대해 평한 글들을 보면 인간을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로 내몰고 그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되여가는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엿볼수 있다.

TV극에서는 감당할수 없는 빚에 허덕이며 지옥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명의 우승자에게 차례지는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잔혹한 경기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고 한다.

예술작품은 현실의 반영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사회경제적지위상승을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있으며 가계부채는 최악에 이르고있다.

2014년부터 2018년사이에 마포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800여명의 자살자가운데서 대다수는 빚에 쪼들려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게다가 악성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빚을 내가면서 도박이나 가상화페투자에 빠져들고있다.

이렇듯 집값폭등과 경제적량극화에 의한 사회적불안감확대, 벼랑끝에 내몰린 청년들과 소외계층 등 남조선사회의 심각한 모순과 우울한 자화상을 TV극은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1등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경기규칙을 만들어놓고 수백명의 처참한 살륙이 벌어지는 경기를 보며 쾌락을 느끼는 경기조직자인 부자의 형상을 통하여 권력자의 횡포와 전횡이 란무하는 사회, 돈없는 사람은 부자들이 가지고노는 장기쪽처럼 취급받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격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고 한다.

TV극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불쌍한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위해 인간성을 잃고 남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민생은 안중에 없이 오직 자기의 권력야욕달성과 치부를 위해 맹수마냥 서로 으르렁거리고있다.

《대선》을 몇달 앞둔 지금 누가 승자가 되느냐를 놓고 벌어지고있는 정치권의 싸움은 사람들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TV극의 주인공들도 무색케 할 정도이다.

TV극을 본 남조선의 각계층이 취업, 부동산, 주식 등 치렬한 경쟁속에 탈락자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것이 사회의 현 주소이다, 이런 사회에서 승자로 된 인간은 패자들의 시체우에 서있다는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서 약육강식과 황금만능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현실을 저주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구수하고 멋진 우리 말이 넘치게

《75년간 우리 학교를 지켜오신 선대들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국에서 태여나 일본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알게 하며 조선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선대들…》

5월에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우리말 운동궐기모임에서 우리 학교 교무주임선생의 토론이 울려퍼졌다.

교무주임선생의 《우리 말은 조선사람의 생명선이고 우리의 힘있는 무기이며 재산이다.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합심하여 기어이 모범학교를 쟁취하자!》라는 열렬한 호소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모두 눈을 반짝이였다.

창립 75돐을 맞는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말을 잘 배우고 늘 쓰는 2중모범학교》의 영예를 지니자고 1학기부터 한단계 높은 우리 말운동을 벌려왔다.

우리말 운동추진위원인 교원들은 우리말 늘 쓰기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과제를 제시하자고 협의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1학기에 《말하기》, 2학기에 《쓰기》, 3학기에 《읽기》능력을 높이는것을 목표로 우리말 운동을 벌릴것을 계획하였다.

1학기에는 학교에서는 물론 통학길에서나 소조시간에도 우리 말을 쓰며 또 배운 우리 말을 적극 익혀씀으로써 도장을 받는 《우리 말 모범증운동》, 조국의 어린이들이 하는 서로 말을 련습하여 발표하는 《서로말경연》 등이 진행되였다. 교원들의 우리말 학습과 시험도 진행되였다.

2학기는 고운글 쓰기, 띄여쓰기, 철자법, 받아쓰기 학습을 교종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며 검정시험형식으로 표창을 하고 학기말에는 《제5학교 우리말 대사전》을 전체 학생의 힘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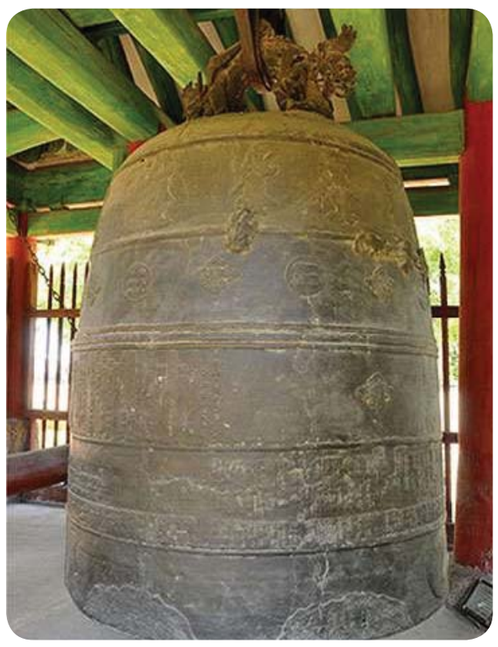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 들어서면 들려오는 구수한 우리 말과 여러가지 멋진 우리말 벽보들은 날마다 높아가는 우리 학교 학생, 교원들의 우리말 쓰기에 대한 의식을 잘 보여주고있다.

도꾜조선제5초중급학교 교원 송필임

(《조선신보》에서 전재)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모양이 우아하고 소리가 장중한 평양종



유서깊은 평양의 련광정과 대동문사이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평양종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그곳으로 향한 기자의 발걸음은 자연히 빨라졌다.

목적지에 다달으니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어려있는 평양종의 웅건한 자태가 안겨왔다.

《평양종의 유래는 퍽 오랩니다. 1714년 평양의 북성을 쌓고 북장대를 세우게 되면서 대동문 웃쪽다락에 이미 달려있던 종을 옮겨달았다는 자료가 전해옵니다.》

리일심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평양종을 눈여겨보느라니 걸고리는 쌍룡틀임으로 하였는데 룡머리의 형상이 생동하게 보였다.

또한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종명 등이 섬세하게 조각되여있었다.

《질량이 13t 513kg이고 높이는 3.1m, 아구리직경은 1.6m인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손꼽히던 큰 종들중의 하나로서 모양이 우아하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일러왔습니다.》

이어 리일심연구사는 평양종의 래력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펴나갔다.

먼 옛날부터 평양성에서는 아침(파루—새벽 4시. 33번 침), 저녁(인경—10시. 28번 침)에 울리는 평양종의 종소리로 모든 성문들이 동시에 여닫기였고 성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변들이 이 종소리로 알려졌다.

때로는 나라의 경사나 외적의 침략을 알리는 신호수단으로도 리용되여왔던 평양종은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였건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세월에는 놈들에게 눌리워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주체34(1945)년 12월 31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처음으로 맞는 새해를 인민들이 즐겁고 뜻깊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밤 12시에 종소리를 울리도록 하여주시였다. 하여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자랑해온 평양종소리가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장엄하게 울려퍼지게 되였다.

진정 민족의 재보도, 귀중한 유산도 위인의 손길아래서만 자기의 모습을 다시 찾고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진리를 되새겨보게 하는 사연깊은 평양종이다.

평양종의 하많은 사연을 되새기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철민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녀자권투강자 방철미

공화국의 체육인들가운데는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뛰여난 경기실력을 보여준 녀자권투선수 방철미도 있다.

평안북도 정주시의 평범한 농장원가정에서 태여나 정주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권투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전문체육단에서 권투선수로 있으면서 강도높은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후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그는 2017년 몽골에서 진행된 울란바따르컵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특히 그는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1kg급경기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녀자권투강자로서의 뛰여난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선수권대회 준준결승경기에서 인디아선수를 가볍게 물리친 그는 준결승경기에서 미국선수에게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댔다. 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미국선수가 반공격으로 나왔지만 방철미선수의 드센 공격에 기가 꺾이여 패하고말았다. 그는 까자흐스딴선수와의 결승경기에서도 5:0으로 이기고 세계선수권을 쟁취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 실력이 제일 높은 선수들의 대결장인 2019년 아시아 남녀권투선수권대회에서도 그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쥐고 좌우이동과 불의적인 치기를 결합한 공격을 들이대여 맞다드는 선수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기고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창공높이 휘날렸다.

인민체육인인 그는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본사기자

건축발전에 이바지해간다

평양건축대학에서 학생들을 건축재료부문의 믿음직한 인재로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이곳 학부 학생들은 질좋은 건축재료들을 자체의 원료와 기술로 만들어내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는 실력가로 준비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건축재료공학부의 록색건재공학과 학생과학연구소조에서는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바깥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하게 하여주는 상변환축열재료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고온, 강추위가 나타나고있는데 맞게 건축물들에 이 재료를 리용하면 많은 전기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록색건축을 실현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곳 학부의 건재실습장에서는 학생과학연구소조원들이 지도교원과 함께 건축물들에 쓰이는 여러가지 칠감들을 더 질좋고 색갈도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한 연구안을 놓고 진지한 토의도 벌리고있다.

그 어느 실험실들에 가나 모든 건축재료를 자체의 원료로 해결할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에 정열을 바쳐가는 소조원들의 모습들을 볼수 있다.

그들의 열기띤 모습에서 나라의 건축재료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하나를 연구해도 자기의것으로 세계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창조물을 내놓으려는 대학생들의 야심만만한 포부를 느낄수 있다.

본사기자

《풍년새가 날아든다》

한찬보가 작사하고 리동준이 작곡한 《풍년새가 날아든다》는 1960년에 창작된 민요이다.

함경도지방에서 전해내려오던 민요 《새타령》의 음조에 기초하여 창작된 이 민요는 해마다 풍년을 이룩하여 더욱 살기좋은 락원으로 전변되여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농촌의 아름다운 현실을 반영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더 행복한 락원으로 전변되여가는 사회주의농촌에서 살며 일하는 농업근로자들의 크나큰 기쁨과 긍지, 끝없는 랑만을 소박하면서도 흥겨운 시어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 꽃피는 봄날과 뻐꾹새에 대한 생동한 묘사는 흥겨우면서도 구수한 민족적정서를 풍만하게 하여주고있다.

선률은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여있으며 민요5음조식에 기초하여 굿거리장단을 타고 밝고 흥겨우면서도 건드러진 정서로 일관되여있다.

선률에서 새의 울음소리를 형상한 재치있는 민요적굴림새는 독특한 매력을 준다.

노래는 간결한 리듬구성과 섬세한 표현 등의 형상적특징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민요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새책소개

도서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6)

평양출판사에서 도서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6)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도서는 해방후 갈길 몰라 방황하던 인사들을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싸우는 열렬한 애국투사들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바다같이 넓은 품에 대해 서술하고있다.

파란많던 이 나라의 근현대사에 큰 자욱을 새긴 풍운의 사나이 김구, 해방후 남조선에서 뛰여난 정치가로 활약하던 려운형, 량심적이고 강직한 법률가이며 대의를 위해 투신한 의로운 정치가 허헌, 한생 펜으로 나라의 독립과 통일애국사업에 이바지해온 애국투사 최일천, 반일애국인사 안창호의 녀동생 안신호녀사.

이들모두는 나라를 통일시켜줄 민족의 구심점, 령수를 그리였으며 그 품속에서 자기의 생을 빛내였다.

도서는 애국에 살고 애족에 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안겨야 할 위대하고 한없이 넓은 절세위인의 품이 있어 그들의 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와 더불어 길이 빛난다는것을 깊은 감동속에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성균관은행나무

성균관은행나무는 개성시 방직동(개성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균관마당에 있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이다.

동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 30m, 밑둥둘레 6m, 가슴높이둘레 5.25m, 약 2.8m의 높이에서 2개의 원줄기로 갈라졌다.

가지들과 줄기에 수많은 잔가지들이 뻗어 직경 약 20m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서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 31m, 밑둥둘레 6.45m, 가슴높이둘레 5.25m, 밑둥직경 2.6m, 가슴높이직경 1.7m이다. 나무는 약 4m의 높이에서 2개의 원줄기가 갈라졌다.

굵은 가지들과 잔가지들이 뻗어 직경 약 27m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이 나무는 조선반도에서 자라고있는 은행나무가운데서 오래 자란 큰 나무이고 유적건물(성균관)과 함께 력사적으로 보존되여오는 귀중한 자연재부로서 학술연구와 나무모양이 아름다워 자연풍치를 돋구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천연기념물 제386호로 지정되여 보호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료리

석박김치

석박김치는 가을철에 담그어 통김치가 익기 전에 즐겨 먹는 음식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추 150g, 무우 50g일 때 고추가루 2g, 파 10g, 마늘 2g, 생강 0.5g, 사탕가루 1g, 소금 5g을 준비한다.

배추는 깨끗이 씻어 3㎝길이로 썰어서 소금물에 2시간정도 절인다. 무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3㎝, 두께 0.2㎝되게 썬다.

파는 토막내고 마늘과 생강은 다진다.

썬 무우에 고추가루를 두고 버무린 다음 절인 배추, 사탕가루, 소금, 파토막, 다진 마늘과 생강을 두고 무친다.

2시간정도 지나서 국물을 해붓고 익혀서 낸다.

본사기자

사화

《쇠도리깨다!》 (5)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노술이와 필도가 이것을 김만수대장에게 가지고 가 보여주자 대장은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부친의 왜놈잡이도리깨질을 본보기삼아 아들은 병장기를 새로 만들어냈단 말이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란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생겼겠다. 장한 아버지에 역시 장한 아들일세!》

대장은 이어서 우리 의병들은 모두다 도리깨질명수들이니 다루는 법을 따로 익힐 필요는 없고 다만 힘키우기가 기본이다, 한 보름동안 땀흘려 훈련하고 싸움마당에 나가보자고 힘있게 격려해주었다.

…봉산의병대는 터골에 둔을 친 왜군무리를 한밤중에 들이쳤다.

이 싸움에서는 도리깨를 든 노술이와 필도가 앞에서 짓쳐나갔다. 다른 세명의 도리깨군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현노술은 놈들속에 뛰여들어 도리깨를 휘두르는 첫 타격으로 한놈을 때려잡았다. 그런데 다시 후려치려는 순간 《지끈!》 하면서 무엇에 부딪쳤는지 도리깨아들이 꺾어졌다. 그는 급히 허리에 찼던 환도를 꺼내잡고 돌진하였다. 필도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후려치기로 자신있게 두놈을 제꼈다. 아주 죽었는지 아니면 얻어맞고도 목숨은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놈이 도리깨를 맞고 꺼꾸러졌다. 세번째때 왜놈이 그의 도리깨앞에 번개같이 방패를 내댔다. 필도가 훈련을 보다 실속있게 하였거나 경험이 있었더라면 이런 경우 즉시 놈의 정갱이를 쳤을것이였다. 그러나 필도는 급한 나머지 정황판단할 조그마한 여유도 가지지 못한채 무작정 거듭 정면타격만 가하였다. 방패를 짓쪼은 장부끝의 구멍이 빠개지면서 도리깨아들이 어디론가 날아났다. 그가 사태를 미처 수습할 사이도 없이 왜놈이 먼저 날쌔게 반타격을 가하였다. 그는 크게 부상을 당하고 쓰러졌다. 뒤따르던 세명의 의병들은 한두놈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채 도리깨를 마사뜨렸다. 구멍이 빠지거나 장부가 꺾어지고 도리깨아들이 부러져나갔던것이다. 실패였다.

교훈은 심각했다.

그 정도의 도리깨로는 적을 잡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이 실패의 첫째 원인이였고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한것이 두번째 원인이였다. 두번째 원인은 의병들의 자만에서 나온것이였다. 현노술자신은 물론 모든 의병들이 자기들의 도리깨질솜씨를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훈련에서 땀을 적게 흘렸던것이다.

노술이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었다. 실패가 전부 자기탓으로만 여겨지는데다가 더우기 필도가 당한 불행은 더더욱 자신을 용서할수가 없게 하였던것이다.

이날 점심상을 마주하였을 때 밥을 푹푹 뜨지 못하는 아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준절히 타일렀다.

《얘야, 용기를 잃으면 왜놈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실패없는 성공이 어디 있다더냐. 사내대장부라는게 그만한것에 기가 죽어가지구… 나라 지키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느니라.》

노술이는 대답대신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맹세를 굳게 다졌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상을 물린 노술이는 부엌으로 내려와 안해가 방금 길어다놓은 질동이의 찬물을 한바가지 푹 떠서 꿀꺽꿀꺽 다 마셔버렸다. 그 모양을 근심스럽게 바라보며 안해가 말했다.

《여보, 속이 막 타는가보군요, 어쩌면…》

《…》

《점심전에 필도아저씨한테 갔댔어요. 그런데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그 아저씨가 막 주먹을 내흔들면서 내 이제 낫기만 하면 도리깰 다시 고쳐서 기어코 두세곱 복수를 하고야말테다고 하며 욱벼르지 않겠어요, 글쎄.》

《!》

안해의 말은 비록 조용하였으나 노술이가 받은 충격은 컸다.

필도는 중상을 당하고도 기백이 펄펄한데 너 노술이는 신수가 멀끔해가지고도 어깨가 처져있어 하고 필도가 꾸짖는것만 같았다.

안해에게 아무런 대꾸는 안했으나 노술이는 부엌문밖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실패가 전부 내탓이라 하더라도, 친구의 부상이 내탓이라 하더라도 기가 꺾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대도 나는 나라를 지켜내야 할 의병이다, 의병! 아버지의 준절한 음성이 귀전에 울려온다.

《실패없는 성공이 어디 있다더냐!》

현노술은 깊은 자책에 잠겨 안해에게 마음속사의를 표하였다.

(여보, 고맙소. 병문안자리에서 많은 말이 오갔겠는데 그가운데서 필도의 그 굳센 말 한마디만 따로 골라 내게 전하는 그대의 마음씨 얼마나 갸륵하오. 아버님뜻과 같은 그대의 마음을 한시라도 잊는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안해도 남편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곱다란 눈에 미소를 그리였다.

교훈은 현노술이로 하여금 병장기를 완성함에 있어서 도리깨의 약한 고리가 어딘가를 뚜렷이 가르쳐주었다. 이로부터 그의 머리속에는 도리깨를 전면적으로 개조할 선이 섰다. 다음날 아침 노술이가 식구들앞에서 그에 대하여 설명하자 현로인은 다 듣고나서 신중하게 권고하였다.

《너의 생각이 옳기는 하다만 보다 더 좋기는 우리 한집 울타리안에서보다 도리깨군들을 필도의 집으로 데리고가서 의논하는게 더 좋을것같구나. 왜놈들한테 부상을 당한 필도인지라 누구보다도 복수심이 강할게고 그래서 자기가 상한 까닭을 두고 깊이 생각했을터인즉 필경 좋은 의견을 내놓을게다. 다른 도리깨군 셋도 경험자들인즉 그들의 말도 값이 있을게고.》

《아버님의 가르치심대로 하겠습니다.》

노술이는 필도에게 자기가 왜 왔는가를 이야기하고나서 《필도, 자네 생각엔 어떤가?》 하고 물었다. 이때 현로인이 늙은이들 몇과 함께 방으로 들어와 필도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따뜻이 병문안을 하였다.

눈의 피로를 풀자면

피로가 오면 눈이 아프며 머리가 무겁고 뻥하다.

이때에는 눈을 가볍게 감고 눈언저리를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간격으로 가볍게 누른다.

그다음 아래턱뼈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나머지 네손가락으로 귀앞으로부터 귀우를 거쳐 귀뒤를 돌면서 5~6번 반복하여 비벼준다.

그리고 눈을 감은 다음 정명혈로부터 속눈섭을 따라 밖으로 가볍게 누르면서 나간다.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가 깨끗이 가셔진다.

이밖에 어깨와 목부분을 자극하는것도 피로를 풀게 한다.

목뒤에 있는 천주혈과 풍지혈 그리고 어깨우에 있는 견정혈을 중심으로 그 둘레를 눌러주거나 잘 비벼준다. 견정혈을 누를 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 속담과 뜻 ◎

◆ 지어놓은 밥도 먹으라는것 다르고 잡수라는것 다르다.

《먹으라.》는 말과 《잡수라.》는 말이 다르듯이 같은것을 대접해도 례절을 지켜 공손하게 대하는것과 그렇지 못한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옴을 비겨 이르는 말.

◆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친절한 말로 고맙게 대해주면 상대편이 마음을 후하게 쓰기마련임을 비겨 이르는 말.

◆ 말이 말을 만든다.

말이란 한입두입 건너 전해지는 과정에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 섞이고 보태지면서 과장되기 쉽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